

“소통 · 협력으로 전북교육 살리자”

서거석 교육감, 예비 교장
대상 연수에서 특강 가져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을 살립시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
장 민완성)은 지난 7일 초·중등 교장
자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등·특수 교감 및 교육
전문직원 165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장을 양성
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경영과 교육정
책 이해, 리더십 역량 강화 등으로 진
행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학교장이 갖춰야
할 정책 이해 능력, 조직 내의 갈등관
리 및 소통 역량,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전북교육의 핵심 정책 방
향과 연계된 실천 중심의 사례 중심
강의와 서거석 교육감과의 특강 및 심
층토론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은 물론 일선 학교장의 실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지난 7일 초·중등 교장 자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포
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례 공유, 자율·책임 경영에 대한
리더십 특강 등 다양한 학습 요소가
포함돼 참가자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
끌어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교장자격 정
책연수는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학교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연수과정 편성으로 전북교육의 결
실을 맺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교육전문직원 55명 선발

16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교육
전문직원 55명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
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
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을 누리집
에 공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발 분야는 유치원 12명, 초등 19명,
중등 24명 등 총 55명이다.

지난해부터 교육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4년 이
상인 정규 교원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근무 기간과 재
외국민교육기관 등에 상근으로 근무
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며, 특
수교사의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실근무 경력을 보
직교사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석·박사 학위 취득 실적
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23일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를 거쳐 6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국회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8일
국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
패는 정재석 위원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교권 보호와
교육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현장의 요구
가 반영된 결과로, 작년 6월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분격화됐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초·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긴급상황에
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
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를 법에 명
시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포함시켰다.

/장은성 기자

올해 추진 반부패 · 청렴 정책 논의 | 전북대, 청렴옴부즈만 2차 회의

전북대학교 청렴 옴부즈만이 8일 2
차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반부
패 · 청렴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청렴 대학을 만들기 위해 지난 3
월 18일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제1기 청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반
부패 · 청렴 업무 전반에 대한 내·외
부 감사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와 관
행, 업무 절차를 발굴·시정해 나가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
해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최대규 명예
교수(대표 옴부즈만), 신효균 전북도민
일보 대표, 오창환 명예교수, 홍정훈 변
호사, 구자익 전 전북대 총무과장 등 5
명의 옴부즈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전북대의 반부
패 · 청렴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부패
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대학 내 불합리
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업무
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다



전북대학교 청렴 옴부즈만이 8일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반부패 · 청렴 정책을
논의한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 옴부즈만 제도
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대학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
과 협력을 통해 반부패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금 ‘역대 최대’

올해 학부 등록금 동결로 97억원 확보... 전년 대비 3.4배 ↑

양오봉 총장 “장학혜택 확대 통해 학생중심대학 실현 가속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국가장학
금 2유형 연간 교부금을 전년 대비
3.4배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97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국가장학
금 2유형은 지난해 대비 등록금 인
하·동결 및 교내 장학금 지원 규모를
유지한 대학에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
원하는 제도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적 어려

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부
담 완화와 복지 확대를 우선 목표로
올해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
다.

또한, 대학 자체 재원을 확보해 2024
년 학부 교내장학금으로 2023년 수준
인 120여원을 지원하면서 국가장학
금 2유형 선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에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대 학생들은 장
학금 수혜인원과 지원액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년 초등 학력신장 특강’ 운영

학교 관리자 대상... 4~6월 세 차례 걸쳐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초등
학력신장 특강’을 세 차례에 걸쳐 운
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초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학력신장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
도록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학
교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분정 창조
나래 시청각실에서 초등 교장(감), 교

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회
차 특강은 신종호 서울대학교 교육학
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기주도학습
의 힘, 문해력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국어 교육의 핵심 전략을 전달한다.

이어 2회차는 5월 20일 열리며, 최수
일 수학교육연구소장이 ‘수학이 즐거
운 교실, 개념으로 시작하라!’를 주제
로 수학교육의 효과적인 접근법을 소
개한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에는 15년간
초·중등 영어 교과서를 개발한 이지
은 영어교육전문가가 ‘영어교육의 핵
심, 교과서가 기본이다!’라는 주제로
영어 학습법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강
시리즈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전문성이 신장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4개 교육지
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
한 학력신장 교원 연수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학교 스타정원의 야경.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도심 속 자연 ‘만끽’

전주대 스타정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쉼터인 스타정원
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스타정원은
대학 내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된
친환경 정원으로, 유채꽃 및 꽃잔
디 등 다양한 계절 꽃들이 만발하
며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
사했다. 최근에는 스타정원에 야
간 조명을 설치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방문객들에게 평온함과

힐링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도 상시 개방해
방문객들이 정원을 편리하게 둘러
볼 수 있도록 했다.

박진배 총장은 “스타정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유
채꽃이 만발한 스타정원에서 자연
과 어우러진 낭만을 만끽하길 바
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토부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 ‘건축허브’ 도입

전북교육청, 교육시설 설계공모 투명성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에서 운영하는 통합 설계공모 디지털
플랫폼인 ‘건축허브(Hub)’를 도입했다
고 8일 밝혔다.

이는 교육시설 설계공모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건축허브
도입 후 첫 사업으로 (가칭)유아 숲·
생태놀이 체험장 설계를 공모, 총 3개
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
다.

오는 16일 교수, 건축사, 관계 전문
가로 구성된 작품 심사위원회를 개최
해 작품을 평가하고,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삼례초등학교 대지 내에 들어설 유
아 숲·생태놀이 체험장은 숲·생태
공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실외 놀이터와 실내 체험시설을
갖추게 된다.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
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93
㎡로 설립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축허브 시스
템을 확대·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가 몽골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8일
밝혔다.

우석대, 몽골 교류 고교 대상 한국문화체험 진행

유학생 유치 선순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몽골 8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
화체험을 진행하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에르드민
우르구 학교, 날라이흐 직업기술학교,
13·14·18·20·31·184번 학교의 고
교생 136명과 인솔 교사 41명 등 총
177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
지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공 체
험, 한국어 교육,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을 경험할 예정이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
해 몽골의 고교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돕고, 한국 유학의 매력을
더욱 더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국제적인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
한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현재 1,500여 명
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